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2.(일) 11:00 < 4.3.(월) 조간 > 배포 2023. 3. 31.(금)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상담(컨설팅) 지원

- 산업부,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공고

-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으로 소부장 수입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으로 소부장 수출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품목별 가격·생산·수출 정보 및 각국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은 4월 3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4월 17일부터 각각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 희망 기업들은 이번 시범 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9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